

# 百濟의 倭使國書 奪取사건\*

- 602~3년 阿莫城·北漢山城 전투와 관련하여 -

徐榮教\*\*

1. 머리말
2. 阿莫城·北漢山城 전투에 대한 여러 견해 검토
3. 倭의 신라출정 연기와 백제군 전멸
4. 북방초원의 정세변화와 고구려의 등장 출정
5. 국서탈취에 대한 倭·隋의 默過와 倭·新羅 관계 정상화
6. 맺음말

## 1. 머리말

『日本書紀』推古天皇 16年(608) 6월 조에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隋에 갔던 왜의 사절 小野臣妹子가 수황제의 국서(返書)를 소지하고 귀국하던 중 백제에게 이를 강탈당했다는 내용이다.

---

\* 이 논문은 2012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江戸시대 國學者 本居宣長(1730~1801)은 자신의 대외관을 다룬 저서 『馭戎概言』(1796년)에서 妹子가 수황제의 返書가 천황의 御心を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라 두려워 분실하였다고 둘러댄 것으로 추측했다.<sup>1)</sup>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던 本居宣長은 수황제가 왜왕에게 보낸 국서가 탈취당했다는 기록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었다. 607년 왜왕은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시작되는 국서를 수 황제에게 보낼 정도였다.<sup>2)</sup> 수나라와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했던 왜국에 대하여 백제의 탈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견해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3)</sup>

西嶋定生은 수양제가 왜의 국서내용이 무례하다고 여겨 返書에서 이를 책망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차마 ‘천황’에게 보일 수 없어 탈취당했다고 둘러댄 것으로 보았다.<sup>4)</sup> 607년 왜가 수와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했고, 그것은 신라와 백제를 조공국으로 삼아 군림하려고 하는 왜의 소책봉체제 유지를 위한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였던<sup>5)</sup> 그가 本居宣長의 주장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

1) 本居宣長, 『馭戎概言』(山口志義夫譯) 現代譯語 本居宣長選集 2, 多摩通信社, 2009, 67쪽. 일본의 국학은 18세기 쇠퇴한 막번체제에 대한 비판 저항 속에서 생겨났다. 국학자들은 유학이 신봉하는 중국학에 반발하며, 고전과 시가의 객관적 연구법을 중추로 하여 일본 고래의 정신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복고주의를 주장했다. 국학자의 거두인 本居宣長은 90종 26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는 『源氏物語』의 연구에서도 문학의 본질을 권선징악에서 해방시키고 내재하는 것에 추구에 있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목적에서 연역되어진 고대로의 환원과 외교사상의 배격을 기저로 하는 그의 학문적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전국에서 문인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일본적인 하나의 학류를 이루게 되었다(미야케 히데토시 지음·하우봉 옮김,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 풀빛, 1990, 110~111쪽).

2) 『隋書』 卷81, 동이 왜국전 “大業三年(607), 其王多利思北孤遣使朝貢. 使者曰 聞海西菩薩天子重興佛法, 故遣朝拜, 兼沙門數十人來學佛法. 其國書曰 日出處天子至書日沒處天子 無恙云云. 帝覽之不悅, 謂鴻臚卿曰 蠻夷書有無禮者, 勿復以聞.”

3) 일본학계에서는 대체로 ‘허위설’의 입장을 피력한다(『岩波講座日本書紀』 190쪽, 頭註 11 참조).

4) 西嶋定生,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1985, 92쪽.

-----, 『遣隋使と國書』, 『西嶋定生東アジア論集』 3卷, 岩波書店, 2002, 238쪽.

5)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日本歷史』 2, 岩波書店, 1962, 229~278쪽.

堀敏一도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을 사실로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妹子 개인의 ‘기우’로 그 원인을 돌렸다.<sup>6)</sup> 堀敏一의 주장은 논점이 애매한 면이 있지만 妹子 개인의 판단으로 돌린 점에서 本居宣長の 시각을 이어받은 ‘허위설’에 가깝다.

한편 三品彰英은 ① 정식으로 수 양제의 국서를 받아오는 데 실패한 妹子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백제의 탈취로 보고했을 가능성, ② 수양제의 국서를 받아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천황에게 그대로 바칠 수 없는 것이기에 거짓 보고했을 가능성, ③ 大和 정권과 수나라와의 관계를 의심한 백제가 실제로 국서를 탈취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sup>7)</sup> 三品彰英은 ‘허위설’과 ‘사실설’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았다.

한편 ‘허위설’에 대한 정면 반론도 있었다. 李成市는 수나라와 왜의 ‘대등외교’를 전제한 ‘허위설’은 그 전제부터 성립되기 어려우며, 妹子의 귀국길에 동행한 수나라 사신 裴世淸의 언동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은 『日本書紀』에 전해지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왜의 대수외교가 고구려의 전략 아래 행해졌으며, 백제는 그러한 왜의 외교를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어 국서약탈을 했다고 보았다.<sup>8)</sup>

노중국도 국서탈취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593년부터 603년까지 왜와 백제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였으나, 603년 이후 614년 사이에 양국의 외교적 공백이 보인다고 하였다. 당시 聖德太子는 관위·憲法 시행 朝禮개정 등의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고, 607년 수에 전해진 왜왕의

金子修一, 「동아시아세계론」(鄭炳俊譯), 『역사와교육』 12, 역사와교육학회, 2011, 351쪽.

6)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1993, 204쪽.

7) 三品彰英,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平樂寺書店, 昭和46(1971), 22~26쪽.

8)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156~157쪽.

井上光貞은 607~8년 왜가 고자세로 임했던 대수외교도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고구려가 왜와 관계를 일층 강화하고 있었고, 동시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42쪽).

국서에 ‘日出處天子’라고 했듯이 왜가 독자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왜가 선진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기 위해 대수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이에 수도 사신을 파견하는 등 이렇게 호응하는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한 백제가 양국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서를 탈취한 것으로 보았다.<sup>9)</sup>

李成市의 경우 왜가 고구려 외교 전략의 짐을 지고 수와 외교를 하는 것을 백제가 묵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노중국은 왜의 독자외교에 대한 백제의 강력한 반발이라 보았다. ‘왜의 친고구려적인 행보’와 ‘왜의 독자노선 견지’는 백제와 왜 관계가 멀어진 분위기의 하나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서탈취사건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노중국도 지적했듯이, 사건은 왜뿐만 아니라 수의 입장에서 일대 사건인 바, 왜왕의 권위는 물론이고 수황제의 권위까지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국제적으로 문제시 될 사건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이성시의 지적대로 귀국길에 수나라 사신 裴世淸과 동행했다는 점을 엮두에 두면 倭使 妹子가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 해도 隋나 倭가 백제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설’의 약점이다.

논점을 돌이켜 보면, 本居宣長 이래의 ‘허위설’도 바로 이러한 ‘無抗議’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혹 일개 사신 妹子가 일으킨 일이니 왜 조정이 그것을 감지하고 큰 문제로 삼을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수서』 권3, 양제기를 보면 “(大業 四年 三月) 壬戌, 百濟, 倭, 赤土, 迦羅舍國並遣使貢方物.”라고 하고 있다. 백제와 왜국의 전통적인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볼 때 왜국사절은 백제사를 따라 수나라에 갔으며, 그해 대수외교를 매개했던 것은 백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 노중국, 「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1994, 156~157, 160~162쪽.

10) 노중국, 앞의 논문, 162쪽 참조.

문제는 百濟와 倭 이외에 赤土·迦羅舍國 등이 나란히 수나라 조정에 遣使하고 방물을 바쳤다는데 있다. 백제가 왜사를 동반했다고 하더라도 赤土나 迦羅舍國이 함께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堀敏一은 백제·왜 공동입조 기사와 적토국 등의 입조기사가 각기 다른 것인데 『수서』 대업 4년 3월 壬戌조에 혼입되었다고 보았다. “前年(대업 3년, 607)에 妹子의 사신단이 백제를 경유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백제 사신도 동행하여 동시에 수에 도착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뭔가 이유의 이유로 적토국(말레이반도 아니면 수마트라 섬 부근에 있었던 나라)의 입조 기사에 혼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쩌면 대업 4년 3월경에는 妹子가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기사의 혼입 원인인 지도 모른다.”<sup>11)</sup>

이는 당시 백제·왜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에서 602년 10월<sup>12)</sup>과 615년 9월<sup>13)</sup> 사이 12년 동안 백제와 왜의 외교관계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수서』 양제기를 근거로 608년 백제가 왜의 대수외교를 중개했다고 보면, 12년간 백제와 왜 사이의 외교적 공백의 중간지점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백제가 지속적으로 親倭적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보는 관점이 ‘허위설’을 지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백제와 왜는 긴밀했으며, 608년 4월 백제가 왜에 도발한 국서강탈 사건은 妹子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왜가 어떻게 홀로 백제의 선박지원 없이 수나라에 조공을 할 수 있는 항해술이 있었는지 반박할 수도 있다.

608년 왜국의 2차 견수사 때 백제사와 동반 조공했다고 보았던

11)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ヤ世界』, 岩波書店, 1993, 206~207쪽.

12)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 “겨울 10월 백제 승려 觀勒이 왔다. 이에 曆本과 天文·地理書 및 遁甲·方術書를 바쳤다. 이 때 書生 3, 4명을 선발하여 관료에게 배우도록 하였다. 陽胡史의 선조인 玉陳은 曆法을 익혔고, 大友村主 高聰은 天文·遁甲을 배웠으며, 山背臣 日立은 方術을 배워, 모두 배움에 성취가 있었다.”

13)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23年(615) 조, “23년 가을 9월 犬上君 御田鍬와 矢田部造가 唐에서 돌아왔다. 百濟의 사신이 犬上君을 따라 來朝하였다. 11월 己丑 초하루 庚寅 百濟사신에게 항응을 베풀었다.”

石母田政은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sup>14)</sup> 백제의 동반 조공과 백제의 국서탈취 두 가지 사실이 논리상 상극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수서』 양제기가 백제의 국서탈취 기록을 부정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라 할 수도 없다. 百濟·倭·赤土·迦羅舍國 등이 수양제에게 각기 조공 사절을 파견했고, 수 조정에서 만나 함께 조공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서탈취사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또 왜가 변함없는 친백제노선을 취했다고 보는 ‘종합설’도 있다. 妹子가 백제의 국서 탈취를 보고하는데도 야마토 정권이 결국 이를 묵인했다고 한 기술에서도 당시 야마토 정권의 외교노선의 기초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왜국사신의 백제루트의 이용은 친백제 노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서 탈취 운운할 정도로 백제는 수나라와 야마토 정권의 직접 교섭에 대해 매우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sup>15)</sup> ‘종합설’은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왜사를 수나라에 데리고 간 백제가 동시에 국서를 압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왜의 지속적 ‘親百濟路線說’이 왜의 ‘묵인’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누각임이 드러난다. 왜 항의가 있었다면 ‘허위설’은 설 자리가 애초에 없었다. 허위설의 대표주자인 西嶋定生の 다음과 같이

14) 石母田政,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新書, 1971[2001], 24쪽. 石母田政은 왜의 대수외교의 목적을 신라와 백제 양국이 왜의 ‘朝貢國’이라는 사실을 공인받는데 있었다고 보았다(앞의 책 27쪽). 이러한 그의 논리에서는 조공국인 백제의 국서탈취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 608년 왜의 대수외교를 매개했던 것은 백제라고 보았던 石母田政의 견해에 연민수는 동의하고 있다(延敏洙, 「日本書紀 ‘任那調’ 關係記事檢討」, 『九州史學』 105, 1992;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327~328쪽). 또한 그는 “600년에 시작된 왜왕권의 대수외교는 고구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604년에서 610년까지 『日本書紀』에 보이는 왜에 대한 고구려의 원조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왜왕권의 대고구려관계는 백제에 버금가는 우호적으로 전개되어 갔다.”(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4쪽). 그는 왜와 고구려 관계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왜 백제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15)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共著, 『日本書紀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2004, 67~68쪽.

주장했다. “國使가 그 使命인 返書를 절도 당했다는 것이 의심되며, 당시 백제가 그것(返書)을 절도할 ‘理由’도 생각나지 않는다.”<sup>16)</sup>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은 왜가 수와 대등한 입장을 취하면서 신라와 백제를 조공국으로 삼고 소책봉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았던 西嶋定生の ‘册封體制論’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시작하는 왜왕의 국서에 대한 중국황제의 국서 분실사건은 西嶋定生 입장에서도 불편한 기록이었다. 더욱이 일본 자체의 그것이 아닌가. 그의 논리에서 조공국인 백제가 대국인 왜의 국서를 탈취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설’이 왜의 ‘친고구려’적 성격이나 백제에 대해 ‘독립’적 성격을 부각했다면, ‘허위설’은 왜의 친백제적 성격을 견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허위설’을 견지하고 있는 鈴木英夫의 견해도 그러하다. 그는 왜의 新羅征討 발단이 추고 8년(600) 신라의 임나공격에서 비롯되었고, 왜왕의 독자출병이라는 『일본서기』 기록은 의문이고 백제가 주도하여 추진된 신라정토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602년 왜의 新羅征討 계획의 목적은 백제에 의한 가야지역 奪回를 원조하여 백제와 연속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고 한다. (왜의) 신라정토가 좌절되면서 그것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았다. 이어 608년 백제는 왜의 대수외교를 중계했으며, 백제의 순조로운 외교에 위협을 느낀 신라가 610년 왜에 접근했다고 보았다.<sup>17)</sup>

여기서 602년 (왜의) 신라정토 좌절이 야기할 수도 있는 백제와 왜·고구려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수항제가 내린 국서를

16) 西嶋定生, 「七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隋帝國の出現と日本』, 日本古代史講座 5, 學生社昭和56(1981) 16쪽 3째줄. 西嶋定生,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1985, 92쪽 12째줄.

17) 鈴木英夫,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 1983;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996, 256~257쪽.

백제에게 탈취당하는 수모를 당한 왜는 어떤 이유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피해의 당사자인 수황제도 왜 묵과하고 말았을까. 과연 백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서탈취를 했고, 근거 없는 만용을 부렸다는 것인가.

본고에서 필자는 왜가 백제의 국서탈취 사건에 대해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수나라도 어떻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지 규명해 보려고 한다.

먼저 아막성과 북한산성 전투에 대한 일본학계의 여러 견해들을 재음미해 보았다. 다음으로 백제군 4만이 전사한 602년 아막성 전투의 결과에 주목하여 여기에 왜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603년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침공이 어떠한 이유로 1년 지체되었는지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백제의 국서탈취사건이 아막성 전투 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왜와 수가 여기에 항의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나아가 국서탈취사건이 610년 신라와 왜의 관계정상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1962년 西嶋定生이 국제적인 정치체제로서 ‘冊封體制論’을 ‘제창’한 그 시기는 일본고대사연구자들의 국제적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때였다. 동시기에 石母田政의 ‘國際的 契機論’(일본의 東夷 小帝國 관념: 1962~3)이 나왔고, 이후 武田幸男의 ‘小中華主義論’으로 이어졌다.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연구자들도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학계의 분위기에서 ‘허위설’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수황제가 왜국에 보낸 그 국서를 백제가 탈취한 사건을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일본학계에서는 602~3년 왜가 백제와 고구려를 끌어들이 단행하려 했던 신라정토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그 좌절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때문에 그것이 고구려와 전쟁을 앞둔 수나라와 麗濟의 양면공격을 받던 신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수도 없었다.

이 글의 주제는 ‘任那의 調’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론’과 관련된다.



하지만 논외로 했다. 6세기 말~7세기 초반은 국제상황이 급변하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란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수나라 중심의 세계질서가 견고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수명도 매우 짧았다. 고구려가 그 세계질서를 흔드는 선두에 있었고, 주변나라들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각기 생존의 열쇠를 찾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던 격동의 시기였다.

## 2. 阿莫城·北漢山城 전투에 대한 여러 견해 검토

602년 지리산 남원 운봉에 위치한 阿莫城에서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벌어졌다. 『三國史記』 백제본기를 보면 이 전투에서 백제군 4만이 전멸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今西龍은 602년 羅濟의 아막성 전투를 국지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다음의 사료에 주목했다.

(推古 9年[601] 3月) 大伴連嚙를 高麗에 坂本臣糠手를 百濟에 보내 任那를 급히 구원하라고 했다.<sup>18)</sup>

(推古 9년[601] 가을 9月) 신라의 간첩 迦摩多가 대마도(對馬)에 도착하였으므로 잡아서 바쳤다. 그래서 가마다를 上野에 유배하였다.”<sup>19)</sup>

(推古 10年[602] 2月) “來目皇子로 擊新羅將軍으로 삼고 諸神部 및 國造, 伴造 등. 并軍衆 2萬 5千을 주었다.”<sup>20)</sup>

(推古 10年[602] 4月) “將軍 來目皇子 筑紫에 도착했다. 이내 屯嶋郡으로

18)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조, “遣大伴連嚙于高麗.遣坂本臣糠手于百濟.以詔之曰.急救任那.” 坂本臣糠手는 587년 7월 蘇我씨가 정적인 物部氏를 타도할 때 蘇我氏의 휘하에서 활약했다(『日本書紀』 卷21, 崇峻天皇即位前紀 用明天皇二年(587) 7月 조).

19)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9年(601) 9月 戊子 조, “新羅之間諜者迦摩多到對馬. 則捕以貢之. 流于上野.”

20)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2月 조,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授諸神部及國造. 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나아가 船舶을 모우고 軍糧을 운반했다.”<sup>21)</sup>

(推古 10年[602]) 6月 大伴連<sup>22)</sup>과 坂本臣糖手が 함께 百濟로부터 도착했다.

(眞平王 24年[602]) 가을 8월 百濟가 쳐들어와서 阿莫城을 공격했다. 王將士들을 시켜 逆戰하여 (백제군을) 大敗시켰다. 貴山과 箒項이 여기서 죽었다.<sup>23)</sup>

(眞平王 25年[603]) 가을 8월 高句麗가 北漢山城을 침공하였다. (진평)왕이 親히 軍대 1萬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막았다.<sup>24)</sup>

今西龍은 추고 9년(601)에 왜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백제와 고구려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602년 백제와 신라 사이의 아막성 전투가 이러한 왜의 촉구와 관련이 확실히 있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공격도 마찬가지라 한다.<sup>25)</sup>

601년 3월 왜의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신라공격 촉구, 601년 신라 간첩 대마도에서 체포, 602년 2~4월 신라 征討를 위한 왜군 2만 5천의 九州 筑紫 주둔, 602년 6월 신라를 협격을 협의하기 위해 고구려와 백제에 갔던 왜사절의 백제로부터 도착, 602년 8월 백제의 신라 아막성 공격, 603년 8월 고구려의 신라북한산성 공격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今西龍이 601~3년의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기록이 대응된다고 보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듯하다.

山尾幸久·井上光貞·石母田政·李成市도 今西龍의 견해에 동의했다. 602년 아막성 전투와 603년 북한산성 전투가 왜의 촉구에 의해 일어난 것이고 602~603년 2만 5천 왜군의 九州 주둔도 이와 관련이

21)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 4月 丙, “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乃進屯鳴郡,而聚船舶運軍糧.”

22)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丁未朔 己酉 丙, “大伴連嚙,坂本臣糖手,共来自百濟.”

2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4年(602) 8월 丙, “秋八月, 百濟來攻阿莫城. 王使將士逆戰, 大敗之, 貴山箒項死之.”

2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25年(603) 8월 丙,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25) 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刊行, 昭和 9年(1934) 212~216쪽.

있다고 보았다.<sup>26)</sup>

하지만 위의 601년 3월 왜가 大伴連嚙을 고구려에 坂本臣糠手を 백제에 파견한 기록에서 백제와 고구려에 명령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보인다. 가야지역에 대해 麗濟가 급하게 병력을 보내라는 것이다. 『일본서기』 특유의 어법이다.

7세기의 『일본서기』 기록은 정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8세기 초반의 율령적 이데올로기로 가필·윤색이 가해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sup>27)</sup> 가령 추고 31년 조의 기록을 보아도 “임나의 땅을 빼앗아 백제에 사여하려 한다”는 식의 기록이 나온다. 三品彰英과 鬼頭清明은 물론이고 한국의 다수 학자들이 한반도와 九州에서 일어난 두 사실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지 않았거나 무시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三品과 鬼頭도 602~3년 왜군의 九州 筑紫 주둔 사실 자체는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sup>28)</sup> 8세기 초중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肥前國風土記』에서 推古天皇대 來目皇子가 축자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주둔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三根郡 物部郷 이 郷의 가운데 神社가 있다. 物部 經津主神이라 했다. 囊者에 小墾田宮에서 나라를 다스릴 적에(御宇) 豊御食炊屋姫天皇(추고천황)이 來目皇子에게 영을 내려 將軍으로 삼아 新羅를 정벌하게 했다. 그때 皇子가 勅을 받들어 筑紫에 도착하여 이내 物部若宮部을 파견하여 그 촌에 神社를 세우게 하고 그 神을 鎮祭했다. 인하여 物部郷이라 했다.

26)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號, 日本歴史會編輯, 1967年 6月, 28쪽. 石母田政,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新書, 1971[2001], 23쪽.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36~37쪽.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문총』, 1990, 158쪽~159쪽.

27) 延敏洙, 「日本書紀 ‘任那調’ 關係記事檢討」, 『九州史學』 105, 1992;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338~340쪽 참조

28) 三品彰英, 「聖德太子の任那對策」,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昭和46(1971), 7~15쪽. 鬼頭清明, 「推古朝をめぐる國際的環境」, 『日本古代國家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89~90쪽.

(三根郡) 漢部郷 옛날에 來目皇子가 新羅를 정벌할 때 忍海漢人에게 칙을 내려 그 村에서 兵器를 제조하게 했다. 인하여 이르기를 漢部郷이라 했다.<sup>29)</sup>

『肥前国風土記』(히젠국, 현재의 사가현·나가사키현)는 현존하는 5개의 풍토기 중 하나이다. 『風土記』는 奈良에 平城京이 造營되고, 지방 제도가 정비된 元明天皇대에 諸国の 国司·郡司를 총동원하여 작성한 郷土誌의 文書이다.<sup>30)</sup>

和銅 6年(713) 畿内七道 諸国은 그 郡内에서 생산되는 銀銅, 彩色, 草木, 禽獸, 魚虫 등의 그 품목을 기록하고 또한 토지의 沃涯, 山川原野의 名号의 所由, 옛날부터 전해오는 旧聞異事를 史籍에 기록하여 올리라는 명을 천황이 내렸다.<sup>31)</sup> 713년에 자료 수집 명령이 지방 관리들에게 하달되었고, 714년 2월 戊戌에 紀朝臣清人과 三宅臣藤麻呂에게 편찬이 맡겨졌다.<sup>32)</sup>

713년 肥前国 관리들이 관할하는 각 지역의 현지를 조사했을 것이고, 三根郡 物部郷과 漢部郷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현지의 신사와 지명 유래를 듣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來目皇子가 筑紫에 주둔한 사실, 그가 物部郷에 神社를 창건한 사실, 漢部郷에서 무기를 제조하게 한 사실 등이 100여 년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다.<sup>33)</sup> 推古(豐御食炊屋姫天皇)대 來目皇子가 이끄는 왜군이 筑紫에 주둔했던 것이

29) 『肥前国風土記』三根郡 物部郷 “此郷之中有神社 名曰物部經津主之神 囊者小墾田宮御宇豐御食炊屋姫天皇 令來目皇子爲將軍征伐新羅. 宇時皇子奉勅到於筑紫 乃遣物部若宮部 立社於此村鎮祭其神 因曰物部郷.” 『肥前国風土記』三根郡 漢部郷 “昔者來目皇子爲征伐新羅 勅忍海漢人將來居此村令造兵器 因曰漢部郷.”

30) 板本太郎, 「風土記について」, 『史蹟名勝千年紀念物』15-3, 昭和15(1940)年;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 文獻篇, 東京大學出版會 1964, 331~342쪽.

31) 『續日本紀』卷6, 和銅 6年(713) 5月 甲子, “制.畿内七道諸国郡郷名着好字.其郡内所生.銀銅彩色草木禽獸魚虫等物.具綠色目.及土地沃埴.山川原野名号所由.又古老相傳舊聞異事.載于史籍亦宜言上.”(板本太郎 앞의 책 332쪽 참조)

32) 『續日本紀』卷6, 和銅 7年(714) 2月 戊戌, “詔從六位上紀朝臣清人.正八位下三宅臣藤麻呂.令撰國史.”

33) 『肥前国風土記』에는 景行天皇이나 神功皇后의 伝説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說話나 土蜘蛛·女性賊長과 관련되는 설화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왜와 백제의 긴밀한 협조는 인정되지만 고구려의 개입은 유보적으로 보는 鈴木英夫의 견해가 그것이다. 고구려는 가야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없으며, 601년 왜의 대고구려 사신파견 사실 그 자체가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그에 의하면 602년 백제에서 가야지역으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아막성의 포위 공격은 가야지역을 노리고 있던 백제의 군사행동으로 왜 왕권과의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종래 백제의 외교에서 볼 때도 용이한 추측이라고 한다. 나아가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조)에 왜왕권이 독자의 출병계획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의문이며, 백제 主導로 추진된 新羅征討策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sup>34)</sup>

백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鈴木英夫 지적으로 백제 主導로 추진된 新羅征討策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임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601년 大伴連嚙의 고구려 파견을 의심하는 것에는<sup>35)</sup>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21, 승준천황 3年(590) 是歲 조는 눈길을 끈다.

是歲.度尼大伴狹手彦連女善德.大伴狛夫人.新羅媛善妙.百濟媛妙光.又漢人善聰.善通.妙德.法定.照善.智聰.善智惠.善光等.鞍部司馬達等子多須奈.同時出家.名曰德齊法師.

34) 鈴木英夫,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 1983: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1996, 256~257쪽. 1967년의 논고에서 山尾幸久는 왜의 축구로 백제와 고구려의 군대가 움직였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鈴木英夫의 지적을 받아들인 그는 6세기 후반과 601년 이후에는 왜와 고구려를 媒介한 것은 백제였던 것으로 보았다(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356쪽).

35) 鈴木英夫, 앞의 책 256쪽 4~5째줄.

587년 6월 蘇我馬子が 物部守屋이 천황으로 옹립하려던 자신의 甥姪 穴穗部皇子를 척살한 직후였다. 아직 物部氏가 건재한 상황이었다. 같은 달 8일 善信阿尼 등이 蘇我馬子를 찾아가 백제에 불교를 배우러 갈 것을 청했고, 馬子는 왜국에 온 백제사신에게 그들의 유학을 부탁했다.

직후 善信阿尼 등은 백제로 유학을 떠났다. 3년 후인 590년 승준천황 3년에 백제에서 불교를 배워온 善信 등이 귀국했다. 아마도 그녀 아래에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여 명의 出家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大伴狛夫人’이었다. 大伴狛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주목된다.

“壬子，從五位下狛朝臣秋麻呂言，本姓是阿倍也，但當石村池邊宮御宇聖朝，秋麻呂二世祖比等古臣使高麗國，因即号狛，實非真姓，請復本姓，許之”<sup>36)</sup>

711년 12월이었다. 박조신추마려(狛朝臣秋麻呂)가 천황에게 자신의 본姓을 찾기를 청원했다. 본래 성은 아배(阿倍)인데 석촌지변궁(用明天皇 587~588)에 그의 2世祖인 비등고신(比等古臣)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간 까닭에 ‘박(狛)’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황의 허락을 받아 본래의 성으로 돌아갔다.

추마려의 조부 比等古臣은 고구려에 다녀온 이후 고마(狛)가 그 가족의 성이 되었다. 물론 그의 집안이 아배씨였다는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속일본기』 和銅 원년(708) 3월 丙午 조에는 추마려의 성과 이름이 “阿倍狛朝臣秋麻呂”라고 명기되어 있다. 추마려의 집안은 조부 이후 자연스럽게 ‘狛’성이 붙여지게 되었고, 阿倍氏 本家에서 분지되었다. 大伴狛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겨지며, 大伴氏가 왜조정의 대고구려 외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흔적으로 보인다.<sup>37)</sup>

36) 『續日本紀』 卷5, 和銅 4年(711) 12月 壬子 조.

37)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徐榮教, 「遣高句麗使 阿倍狛比等古臣」, 『韓國古代史探究』 12, 2012, 195~234쪽.

더구나 위의 ‘大伴狛夫人’의 기록은 秋麻呂의 조부 比等古臣이 고구려에 다녀온 3년 후의 기록이다. 물론 大伴狛夫人의 배우자도 추마려의 조부와 함께 고구려에 파견되었거나 바로 뒤이어 590년 이전에 고구려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587년 가을 7월 蘇我氏와 物部氏 사이에 권력을 놓고 거대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에도 大伴씨는 阿倍씨와 함께 蘇我씨 휘하에서 物部守屋을 타도하는데 참여했다.<sup>38)</sup>

그러나 『日本書紀通證』은 ‘大伴狛夫人’을 大伴狹手彦連이 고구려를 쳤을 때 잡은 포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sup>39)</sup> 通證은 그녀를 大伴氏의 狛夫人으로 보고 있다.<sup>40)</sup> 이러한 논리대로 본다면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大伴狹手彦連女善德(大伴狹手彦連의 딸 善德) 다음에 大伴狛夫人이 등장한다. 딸이 먼저이고 부인이 나중이다. 최상층 남자의 妻를 일컫는 夫人의 칭호를 포로에게 사용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일본서기』 권25, 대화 5년(649) 3월 己巳조에 大伴狛連이란 인물이 보인다. 通證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大伴氏의 狛連이 된다. 하지만 이어지는 같은 기록에서 大伴連이라고 하고 있다.<sup>41)</sup> 通證의

38) 『日本書紀』卷21, 崇峻天皇即位前紀用明天皇 2年(五八七) 7月 丙, “秋七月, 蘇我馬子宿禰大臣勸諸皇子與群臣, 謀滅物部守屋大連, 泊瀨部皇子, 竹田皇子, 廩戶皇子, 難波皇子, 春日皇子, 蘇我馬子宿禰大臣, 紀男麻呂宿禰, 巨勢臣比良夫, 膳臣賀施夫, 葛城臣烏那羅, 俱率軍旅進討大連, 大伴連噉, 阿倍臣人, 平群臣神手, 坂本臣糠手, 春日臣, 〈關名字〉, 俱率軍兵從志紀郡到澁河家, 大連親率子弟與奴軍, 築稻城而戰.”

39) 한편 김현구는 大伴狹手彦連이 고구려를 쳤다는 것 자체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김현구外 共著, 『日本書紀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2004, 33쪽).

40) 일본학계에서는 通證의 설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小島憲之 外 校註譯, 『日本書紀』2,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3 小學館 1997, 521쪽 頭註 17을 보면 “大伴 狛夫人, 大伴氏의 高句麗人 妻”라 하고 있다.

41) “是日, 以大伴狛連與蘇我日向臣, 爲將領衆使追大臣, 將軍大伴連等及到黑山.” 大伴連에서 알 수 있듯이 ‘狛連’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쉽지 않다. ‘連’은 684년 天武天皇대에 제정된 ‘八色 성(姓)’, 真人:まひと-朝臣:あそん-宿禰:すくね-忌寸:いみき-道師:みちのし-臣:おみ-連:むらじ-稻置:いなぎ 가운데 7번째이다. 連은 관직·관등적 성격이 있는 명칭인 듯하며, 이름이라기보다 大伴狛씨의 連(무라지) ‘누구’이다. 그러나 大伴씨의 連이라 할 수도 있었다.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大伴狛連이란 阿倍狛朝臣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전담외교에 참여하면서 大伴씨 내부에서 분지된 가계가 존재했던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李成市는 신라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의 포위는 인정했다. 다만 왜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았고, 고구려의 요청과 후원으로 보았다.<sup>42)</sup> 연민수는 전쟁보다 ‘외교’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sup>43)</sup>

물론 이러한 추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백제보다 1년 늦게 신라를 공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구려가 주도했다면 백제보다 먼저 신라를 공격해야 했을 것이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고구려의 늑장은 백제에게 치명적이었다.

598·607년 백제는 수에게 고구려를 협격하자고 제의했고, 그때마다 고구려는 백제를 즉시 공격했다.<sup>44)</sup> 양국은 숙적관계였다. 백제와 관계가 좋지 못한 고구려가 왜에 요청하여 양국을 중재하게 했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왜의 ‘의지’<sup>45)</sup>와

42)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158~159쪽. 앞의 논문 158쪽 註48. 그리고 李成市, 「고구려 승려 혜자와 쇼토쿠 태자」,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62쪽 註29에 1932년 『文教の朝鮮』(1925년 9월부터 한국에서 발행된 월간지)에 연재된 今西龍의 논고 「泗泚時代 I」을 「聖明王의 敗死 任那の 滅亡」이라 오기하고 있고, 저자도 池内宏로 오기하고 있다.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1990~9: 「古代東アヅ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에는 정확히 今西龍의 그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今西龍이 『文教の朝鮮』에 昭和 5年 6월부터 연재한 논고들은 「百濟史講話」라는 하나의 장으로 묶여져 그의 『百濟史研究』 63~244쪽에 실려 있다.

43) 연민수 앞의 논문. 최근 그의 논고에서 601년 9월 신라 간첩이 대마도에서 체포되면서 왜왕권은 즉시 긴장상태에 들어갔으며, 그해 11월 신라침공을 논의하고 이듬해는 신라정토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북구주에 來目皇子를 장군으로 하는 2만 5천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신라와 긴장관계 표출이며 대외관계의 관문인 북구주에 대한 경비태세로 군사시설의 점검이었다고 보았다(延敏洙, 「新羅의 對倭外交와 金春秋」, 『新羅文化』 37, 2011, 4쪽).

44)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무왕 8년(607) 조. “여름 5월에 고구려가 송산성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키지 못하자. 옮겨 석두성을 습격하여 남녀 3천 명을 사로 잡아갔다.”

45) 『日本書紀』 기사들 중에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왜왕들의 의지에는 일관성이 있다. 이는 欽明에서 推古까지 4대에 걸친 숙원사업



실무적 중재없이 삼국의 신라협격은 계획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

고구려 주도설도 완벽하지는 않으며, 백제 주도설도 신라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결과를 놓고 본 해석이다. 아무런 선입관 없이 사료 그대로 왜가 고구려와 백제를 중재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46)</sup>

### 3. 倭의 신라출정 연기와 백제군 전멸

이제 위에서 제시한 사료로 아막성 전투 이전의 단계와 발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601년 3월 왜는 大伴連嚙를 고구려에 坂本臣糠手を 백제에 파견했다. 가야지역에 대해 麗濟가 급하게 병력을 보내라는 것이다. 왜는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가야지역에 대한 협공을 사신을 보내 려제 양국과 협의했다.

이 시기에 왜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 신라가 열중했던 기록이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601년 9월 신라의 간첩 迦摩다가 대마도(對馬)에서 체포되었다. 그것으로 왜국 내부의 신라 간첩활동이 모두 중단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601년 11월에 왜 조정에서 신라침공이 논의되었다. 602년 2월 기유 朔에 聖德太子의 동생인 來目皇子를 對신라 정벌 장군으로 하고 神部·國造·伴造 등과 아울러 군병 2만 5천 명을 주었고, 같은 해 여름 4월에 무신 朔에 장군 來目皇子는 筑紫 도착했다. 나아가 嶋郡(福岡 鳥郡)에 주둔하여 선박을 모아 군량을 운반하였다.

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日本書紀』가 자기네 천황들의 의지표명까지 굳이 조작해 넣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이희진, 「가야의 멸망과정과 ‘任那調’, ‘任那復興’의 의미」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46) 山尾幸久, 「大化前後の東アジア情勢と日本の政局」, 『日本歴史』 229號, 日本歴史會編輯, 1967年 6月, 28쪽.

九州에서 왜군 2만 5천이 신라출정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라도 왜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남해안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今西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 귀산전을 보면 아막성 전투 종료 직후 진평왕이 신하들과 함께 전사한 귀산과 추항을 맞이한 阿那之野는 咸安이었다.<sup>47)</sup>

602년 8월 당시 진평왕은 신하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남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함안에 진을 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원 운봉 아막성에서 승리한 전투를 치른 귀산과 추앙이 왕경으로 가지 않고 함안으로 향한 것은 왜의 상륙에 대비해 신라 병력이 그곳에 재배치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당시에도 왜군 2만 5천은 여전히 九州 筑紫에 주둔하고 있었다. 신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언제 침공해 올지 몰랐다.<sup>48)</sup>

고구려에 파견된 大伴連嚙이 견백제사 坂本臣糠手과 함께 602년 6월 백제로부터 귀국했다.<sup>49)</sup> 고구려로 간 왜사의 백제로부터의 귀국에 대해 왜왕권의 대고구려 접촉 내용을 백제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왜왕의 특명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고구려-백제-왜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신라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50)</sup>

왜국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 백제에서 먼저 나왔다. 602년 8월 백제 무왕은 군대를 지리산 중턱 아막성으로 진군시켰다. 아막성은 지금의 남원 운봉지역으로 그 부근에 지리산의 고개 팔랑치가 위치해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함양이 나오고 남강을 따라가면 가야지역이다. 『삼국사기』 무왕 3년 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47) 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刊行, 昭和 9年(1934), 212~216쪽.

48) 서영교,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7~12쪽. 고구려-백제에 대한 왜국의 신라협력 제안은 앞의 논고에 소개되어 있다.

49)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 (602) 6月 조.

50) 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4쪽. 다만 여기서는 외교적 시각에서 보았다. 앞서 井上光貞은 601~603년의 그것을 新羅에 對한 「軍事的 外交」로 표현하고 있다(앞의 논문 40쪽, 44쪽).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아막성을 포위하였다. 신라왕 진평이 정예기병 수천 명을 보내 막아 싸우니 우리군사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라가 소타·외석·천산·옹잠 등 네 성을 쌓고, 우리 변경에 침범하였다. 왕이 노하여 좌평 해수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그 네 성을 공격케 하였다. 신라 장군 건품, 무은이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싸웠다. 해수가 불리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천산 서쪽의 소택지로 퇴각하여 복병을 숨겨 놓고 기다렸다. 무은이 승세를 타고 갑병 1천 명을 거느리고 소택지까지 추격하여 왔을 때, 복병이 달려들어 갑자기 공격하였다. 무은은 말에서 떨어지고 군사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무은의 아들 귀산이 큰소리로 말했다.

[내 일찍이 스승에게 들으니 ‘군사는 적을 만나서는 물러서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찌 감히 도망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겠느냐!]

그는 말을 아버지에게 주고 즉시 소장 추항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우다가 사망하였다. 나머지 군사들이 이를 보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 군사가 패배하고, 해수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여 단신으로 돌아왔다.”<sup>51)</sup>

602년 8월 백제군이 아막성을 포위했다. 신라가 기동성이 있는 騎兵 수천을 급히 파견하여 그 포위를 풀었고, 백제군은 일단 후퇴했다. 아막성에 대한 선제공격에 백제군 4만이 모두 동원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는 신라가 아막성 주변에 4개성을 쌓고 백제영토로 침공해오자 백제가 步騎 4만을 동원하여 반격했다고 명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신라의 기병 수천이 상대한 백제군은 본대가 아니라 선발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1)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무왕 3년 조. “秋八月, 王出兵, 圍新羅阿莫山城[一名毋山城]. 羅王眞平遣精騎數千, 拒戰之, 我兵失利而還”. “新羅築小陘畏石·泉山·壘岑四城, 侵逼我疆境. 王怒, 令佐平解讎,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 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曰, ‘士當軍, 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卽與小將箒項, 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

신라의 원군 가운데 將軍 무은 그리고 少將인 귀산·추향도 있었다.<sup>52)</sup> 신라군이 백제군을 대패시킨 곳이 泉山大澤에 한정하여 볼 수 없고 그곳에서 승기를 잡은 신라군이 운봉분지의 넓은 들판에서 기병으로 백제군을 전멸시켰으며, 귀산과 추향은 신라 원군 수천 기병의 구성원이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sup>53)</sup>

아막성 전투를 泉山大澤에 한정하여 보지 않았다.<sup>54)</sup> 이는 아막성 전투의 전개양상과 관련하여 상당히 진전된 지적이다.<sup>55)</sup> 하지만 신라의 원군 규모를 아막성의 포위를 풀기 위해 급히 출동시킨 ‘수천 기병’으로 한정하여 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 말을 먹고 관리해야 할 기병 수천으로 4개성 축성을 해냈고, 4만의 백제군을 전멸시켰다는 것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백제 병력은 步騎 4만으로 보병과 기병으로 이루어진 병력이었다. 그 가운데 1/10이 기병이라고 해도 4천으로 신라의 기병 수천을 상회할 수도 있는 규모이다. 백제의 병력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천의 기병으로 신라가 4만 대군을 전멸시켰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은·귀산·추향이 말을 타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장군이나 장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은 신라 장군 무은 휘하의 ‘甲兵 1천’에 속했고,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하자 진평왕이 출동시킨 ‘將士’였다.<sup>56)</sup>

신라기병 수천은 아막성의 포위를 풀기 위해 급하게 출동한 선발대이고, 무은·귀산·추향 등은 공병을 대동한 대규모 2차 원군이라 여겨진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군들은 아막성을 주위로 소타성·

52) 『三國史記』 권45 열전 제5 귀산전.

53) 金周成, 「백제 무왕의 대야성 진출 기도」, 『百濟研究』 49, 2009, 46쪽.

54) 김수태는 아막성 전투를 泉山大澤 지역으로 한정해서 보았다(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189쪽).

55) 필자는 직전에 제출한 논문에서 金周成 교수의 이 견해에 대해 주석을 달지 않는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서영교, 「阿莫城 전투와 倭」, 『歷史學報』 216, 2012. 12, 251쪽·267쪽).

56) 『三國史記』 卷4, 眞平王 24年(602) 8월 조.

외석성·천산성·웅잠성 등 4개의 요새를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영토로 진격하여 백제 4만 대군을 전멸시킬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신라의 원군 도착과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0년(602) 6월 조가 주목된다.

6월 丁未 朔 己酉에……이때 來目皇子는 병에 걸려 신라정벌을 다하지 못하였다.

앞서 6월에 九州에서 신라를 향해 출발하려던 왜군의 총사령관 來目皇子가 築紫에서 병에 걸렸다. 같은 사실을 『聖德太子傳曆』<sup>57)</sup> 上卷7, 十年(三十一歲 602), 夏 4月 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來目皇子가 筑紫에 도착했는데, 臥病으로 不進했다. (聖德)太子가 그것을 듣고, 左右에게 말하기를 “新羅奴 등이 將軍(래목황자)을 厭魅(저주)함이 果度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聖德太子가 新羅놈(奴) 등이 장군인 황자를 저주하여 병이 걸렸다고 좌우에게 말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來目皇子의 와병으로 왜군의 출병이 연기된 사정을 신라가 파악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없다. 다만 왜가 九州에서 신라 간첩들의 활동을 의식하고 있었고, 동시에 신라가 九州에서 왜군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하나의 방증일 수는 있다.

왜의 신라출병 지체는 신라가 병력을 아막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백제에게 치명적이었다. 백제군의 목표는 지리산을 돌파하여 남강유역의 가야지역 장악에 있었다.<sup>58)</sup>

57) 『聖德太子傳曆』과 和銅의 旧本 『日本記』 그리고 『日本書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坂本太郎, 『『聖德太子傳曆』と『日本書紀』』, 『南都佛教』 29, 昭和 47년(1972) 2月 刊行; 『日本古代史叢考』, 吉川弘文館, 1983, 1~21쪽.

58) 今西龍, 『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刊行, 昭和 9年(1934), 215쪽.

백제군이 任那로 가기 위해 통과할 고개로 여겨졌던 운봉이 결과적으로 결전의 장소가 되었다. 『삼국사기』 귀산전은 전투의 결과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적(백제군)의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여 한 필의 말, 한 채의 수레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가야지역 구원요청을 먼저 한 왜군은 오지 않았고, 뒤에 언급하겠지만 고구려는 1년 지각을 했다. 그 와중에 백제군은 병력 4만을 잃었다. 재앙적인 패전은 백제의 왜·고구려 관계에 어둠을 던졌다.

왜의 출병연기의 주요 원인은 來目皇子의 와병이었다. 그것은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듬해 九州 주둔지에서 그 결과가 보인다.

(推古) 11년 봄 2월 癸酉 초하루 丙子 來目皇子가 筑紫에서 죽었다. 이에 驛使를 보내어 아뢰니, 천황이 듣고 크게 놀라 皇太子와 蘇我大臣을 불러, “신라를 정벌하는 대장군 來目皇子가 죽었다. 그가 큰일에 임하고도 완수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슬프도다” 라고 말하였다.<sup>59)</sup>

603년 2월 신라정벌 장군 來目皇子가 죽었다. 같은 해 4월과 7월에 변화가 있었다.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1년(603) 여름 4월 조와 7월 조를 보자.

4월 朔에 래목황자의 兄 當摩皇子를 신라 정토의 장군으로 하였다.

7월에 辛丑 朔 癸卯(3일)에 당마황자는 배로 난파를 뒀다. 丙午(6일)에 당마황자가 播磨에 이르렀을 때, 따라오던 처 舍人姬王이 赤石에서 죽었다. 그래서 척석의 檜笠岡 위에 매장하고 당마황자는 되돌아와서 마침내 정토하지 않았다.

---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 교섭과 정복」, 『백제연구논총』 5, 충남대백제연구소, 1997, 76쪽

59)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1年(603) 2月 丙子 “十一年春二月癸酉朔丙子。來目皇子薨於筑紫。仍驛使以奏上。爰天皇聞之大驚。則召皇太子。蘇我大臣。謂之曰。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其臨大事而不遂矣。甚悲乎。”

603년 4월 來目皇子가 죽고 그 자리에는 當摩皇子가 임명되었다. 하지만 7월 當摩皇子의 처가 죽고 그가 돌아가면서 왜국의 신라침공계획이 중지되었다.

#### 4. 북방초원의 정세변화와 고구려의 능력 출정

왜군이 九州에서 철병한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영양왕) 14년(603) 왕은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北漢山城을 공격했다. 신라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 (신라군이) 북 치고 소리 지르며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은 저들이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므로,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sup>60)</sup>

(진평왕 25년) 가을 8월, 고구려가 北漢山城을 침공하니, 왕이 친히 병력 1만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막았다.<sup>61)</sup>

진평왕은 친히 병력 1만을 한강 하류까지 이끌고 가서 북한산성을 구원했다. 사료 상에서 왜군의 筑紫철병과 고구려의 북한산성공격은 1개월의 차이가 있다. 신라의 원군 1만은 원거리를 이동해온 군대였다. 하지만 고구려 장군 고승은 싸워보지도 않고 철수했다. 그는 진평왕이 친히 1만의 원군을 이끌고 온 것을 보고 왜군의 철병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

고구려가 왜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군이 출병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기회가 왔을 때 한강하류의 중요한 거점인 북한산성을 신라로

60) 『三國史記』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14년 조.

61)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진평왕 25년(603) 조.

부터 탈취해야 했다. 그곳을 차지하면 고구려가 한강하류 지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공격 시점은 정확히 백제의 신라 아막성 공격과 12개월의 차이가 난다. 1년 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했다면 진평왕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서 북한산성을 구원하기 곤란했을 것이고, 고구려가 신라 서북방의 거점인 북한산성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 고구려가 신라의 전력을 북쪽으로 분산시켜 백제도 아막성에서 재앙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는 뒤늦은 출병으로 북한산성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구려의 서북방 상황을 살펴보자.

601년 3월 왜의 사신 大伴連嚙이 고구려에 와서 신라를 공격하자고 요청을 하였을 때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600년 都藍가한 雍虞闔가 그 부하에게 살해되자<sup>62)</sup> 서돌궐의 가한 阿史那玷厥, 達頭可汗은 동쪽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돌궐 제국의 재통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비잔틴제국의 사료에 타르두(Tardu)로 나오는 그는 먼저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隋)의 수도인 장안을 위협했다. 601년 1월 서돌궐의 달두가한의 공격으로 수의 장군 韓洪이 恒安鎮(산서성 大同市)에서 궤멸되었다.<sup>63)</sup>

사태가 이렇게 되자 수나라의 지원을 받던 啓民可汗 휘하의 斛薛(돌궐계 유목부족, 鐵勒의 하나) 등의 여러 부락들이 이탈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602년 달두가한은 오르도스의 계민가한을 공격했다. 달두가한의 부하인 阿勿思力俟斤 등이 계민가한을 공격하여 남녀 6천과 가축

62) 『隋書』 권84, 돌궐전, “雍虞闔侵掠不已, 遷於河南, 在夏”, 勝二州之間, 發徒掘塹數百裏, 東西拒河, 盡為啟民畜牧之地. 於是遣越國公楊素出靈州, 行軍總管韓僧壽出慶州, 太平公史萬歲出燕州, 大將軍姚辯出河州, 以擊都藍. 師未出塞, 而都藍為其麾下所殺.”

63) 『資治通鑑』 권179, 수기3 문제 인수 원년(601) 정월 조.



20만 두를 약탈해갔다.<sup>64)</sup>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수문제 양견의 공작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달두가한 휘하에 있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시베리아 바이칼 부근에 위치한 鐵勒과 시베리아 예니세이 강 상류에 위치한 僕骨의 반란은 그해 달두가 동쪽 몽골리아에서 계민가한을 공격하느라 서쪽의 본거지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sup>65)</sup>

『자치통감』 권179, 수기3 문제 인수 2년(602) 봄 3월 조를 보면 “이로부터 돌궐은 멀리 숨었고, 사막의 남쪽에는 다시 노략질하는 일이 없어졌다.”<sup>66)</sup>라고 하고 있다. 계민가한은 수의 후원 아래 몽골리아를 장악한 것 같다. 그 결과를 『자치통감』 권19, (수)문제 인수 3년(603) 9월 조 아래에 있는 是歲 조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돌궐의 보가(步迦-달두)가한이 거느리는 부락이 크게 어지러웠고, 鐵勒과 僕骨 등 10여 부락이 모두 배반하니, 보가 가한이 계민 가한에게 항복하였다. 보가 가한의 무리는 무너져서 서쪽으로 가서 토욕혼으로 달아났고, 長孫晟은 계민가한을 보내어 磧口(내몽골 蘇尼特右旗)에 두었으며, 계민가한은 이에 보가가한의 무리를 다 소유하였다.”<sup>67)</sup>

위의 사료는 達頭가한의 패망의 결과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니까 602년 3월부터 603년 9월까지 사이의 기록이다. 결과는 달두가한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달두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세력기반을 상실했다.

64) 『隋書』 권84, 돌궐전, “仁壽元年, 代州總管韓洪為虜所敗於恆安, 廢為庶人. 詔楊素為雲州道行軍元帥, 率啟民北征. 斛薛等諸姓初附於啟民, 至是而叛. 素軍河北, 值突厥阿勿思力俟斤等南度, 掠啟民男女六千口, 雜畜二十餘萬而去.”

65) 르네 그루세는 수나라의 초원공작을 암시하고 있다(르네 그루세,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김호동외 譯) 사계절 1998, 151쪽).

66) 『資治通鑑』 권179, 수기3 문제 인수 2년(602) 봄 3월 조; “自是突厥遠遁, 磧南無複寇抄.”

67) “突厥步迦可汗所部大亂, 鐵勒仆骨等十餘部, 皆叛步迦降於啟民. 步迦眾潰, 西奔吐穀渾; 長孫晟送啟民置磧口, 啟民於是盡有步迦之眾.”

602년부터 시작된 서돌궐의 달두가한의 붕괴는 고구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sup>68)</sup> 서돌궐은 수나라 휘하의 계민가한의 군대를 초원에 묶어 둘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수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계민가한 휘하에 돌궐 제부족이 통합되었다. 초원에 대한 수나라의 통제력이 상승했다.

고구려는 수가 계민가한의 동돌궐 병력을 동원하여 침공해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었다. 급격한 변화는 고구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태를 관망해야 했던 고구려는 신라침공을 연기해야 했을 것이다.

초원의 상황변화가 고구려의 남방정책과 연동되어 작용했던 것 같다.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6년(604) 조를 보면 “南川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604년 신라는 경기도 이천지역에 있는 남천주를 폐하고 한강 이북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한강하류방면에서 주치를 북진시켰다.

605년 신라는 패전으로 약해진 백제를 공격하기까지 했다. 『삼국사기』 권27, 무왕 6년 조를 보자.

6년(605) 봄 2월에 角山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신라가 동쪽 변경을 쳤다.

角山城은 지금의 전북 정읍 내장면 葛岷으로 추정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sup>69)</sup> 605년 가을 8월에 신라가 백제의 동쪽 변경을 공격했다. 국지적인 전투가 있었겠지만 백제가 여기에 대항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병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무왕은 반격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려워진 백제의 사정을 설명하듯이 606년 3월 사비도성에

68) 602년 서돌궐 달두가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여호규가 지적한 바 있다(여호규, 「6세기 말 ~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30쪽.) 다만 그는 603년 8월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을 서북으로의 진출이 막히자 남쪽으로 전력을 투사한 것으로 보았다.

69)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 1983, 382쪽.

흠비(雨土)가 내려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다.<sup>70)</sup>

백제입장에서 보았을 603년 8월 고구려의 북한산성 침공은 극장 대응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공동이해를 가지고 협력 ‘계획’에 함께 참여하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고구려에 대해 외교적으로 적대적인 조치를 취한다. 607년 백제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해 동돌궐 계민가한의 牙帳(천막궁정)에서 수양제가 고구려사신과 마주쳤고, 양국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수서』 권81, 백제전을 보면 그해 백제가 사신 王孝隣을 보내와 고구려 토벌을 청했다고 한다. 수양제는 그것을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sup>71)</sup> 여기에 대한 고구려의 반응은 바로 나타났다.<sup>72)</sup> 『삼국사기』 권27 무왕 8년(607) 5월 조를 보자.

여름 5월에 고구려가 松山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키지 못하자. (군사를) 옮겨 石頭城을 습격하여 남녀 3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70)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 무왕 6년 조.

71)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그러나 璋(백제 무왕)은 고구려와 連和하면서 속임수로 중국을 엿본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백제의 속임수는 607년 당시에 바로 認知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대업7년(611) 양제가 몸소 고구려를 정벌하려 하자 璋이 그의 신하 國智牟를 보내와 출병의 시기를 물었다. 양제가 크게 기뻐하여 尙書起部郎 席律을 백제에 보내어 서로 알게 하였다. 이듬해(612)에 六軍(황제의 군대)이 遼水를 건너니, 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배치하고 隋軍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 兩端策을 쓰고 있었다.” 612년 고구려와 전쟁이 발발되면서 백제가 속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612년의 백제의 양단책에 대한 인식이 607년으로 일부 옮겨져 『수서』 권81, 백제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72) 『수서』 권81, 동이 백제전. 실제 백제 무왕은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이 결정된 직후인 611년 2월에도 사신 國智牟(國智牟)를 파견하여 행군기일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수양제는 사신 席律(席律)을 백제에 보내 무왕과 서로 모의하게 했다.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하지만 백제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 『수서』 권81, 동이 백제전은 “이듬해(612) (수나라의) 육군(六軍)이 요수(遼水)를 건너니, (백제) 무왕(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배치하고 수군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는 兩端策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607년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수를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앞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백제의 양단책은 그로부터 5년 후인 612년에 실행되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재악화는 고구려와 전쟁을 앞둔 수의 입장에서 백제를 동맹세력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조건이 되었다.

## 5. 국서탈취에 대한 倭·隋의 默過와 倭·新羅 관계 정상화

그 이듬해 백제의 국서 탈취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서기』는 608년의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6년(608) 여름 4월 小野臣妹子가 大唐으로부터 도착하였다. 당나라에서 妹子臣을 ‘蘇因高’라고 불렀다. 대당의 사신 裴世淸과 下客 12인이 妹子臣을 따라 筑紫에 이르렀다. 難波 吉士 雄成을 보내어 대당의 사신 裴世淸 등을 부르고, 당나라 사신을 위하여 다시 새 館舍를 難波 高麗館의 위에 만들었다.<sup>73)</sup>

6월 壬寅 초하루 丙辰 사신들이 難波津에 정박하였다. 이날 飾船 30척으로 사신들을 강 입구에서 맞이하여 新館에 안치하였다. 이에 中臣宮地連烏摩呂·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을 掌客으로 삼았다. 그러자 妹子臣이, “(臣이) 돌아올 때에 당나라 황제가 서찰을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를 지나올 때에 백제인이 조사하여 빼앗았으므로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군신들이 의논하여, “무릇 사신이란 비록 죽을지라도 소임을 잃지 않아야 하는 법인데, 이 사신은 어찌 그렇게 태만하여 대국의 서찰을 잃어버렸는가”라 하고, 유배형에 처하였다. 그때 천황이 칙을 내려, “妹子는 비록 서찰을 잃어버린 죄가 있으나, 경솔하게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73)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6年(608) 4月 丙, “夏四月.小野臣妹子至自大唐.唐國號妹子臣曰蘇因高.即大唐使人裴世淸.下客十二人.從妹子臣至於筑紫.遣難波吉士雄成.召大唐客裴世淸等.爲唐客更造新館於難波高麗館之上.”

그 대국의 사신들도 이를 듣고 또한 좋지 않다고 하므로, 죄를 용서하여 처벌하지 않았다.<sup>74)</sup>

608년 수황제의 국서를 가지고 귀국하던 왜국의 사절이 백제의 해안가를 지나갔다. 백제는 왜국의 사절단의 손에 들려 있는 황제의 국서를 압수했다. 국서를 빼앗긴 妹子는 왜 조정에서 처벌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백제의 강압에 못이겨 국서를 절도당한 사정을 잘 알던 수나라의 사신들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천황도 그의 죄를 용서했다.

노중국은 실권을 장악한 성덕태자가 593년부터 603년까지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였지만 603년 이후 614년 사이에 왜의 대백제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 『일본서기』에 이 시기 백제와 왜 사이의 사신왕래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603년~614년의 외교공백은 양국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며, 국서탈취사건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다.

또한 그에 의하면 백제와 왜 양국의 관계는 늘 우호적인 관계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치상황의 변화나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따라 대립과 갈등 관계를 빚기도 했고, 외교공백과 백제의 국서탈취사건도 그러한 일로 발생하는 사건의 일부로 보았다.<sup>75)</sup>

외교공백이 양국간의 문제 있었음을 의미하며 국서탈취사건을 그러한 맥락에서 본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외교적 공백의 원인을 성덕태자의 ‘독자노선추구’로 돌리고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아막성 전투의 참사가 양국의 관계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막성의 참사의 결과를 놓고 602년 10월<sup>76)</sup>

74)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6年(608) 6月 丙, “六月壬寅朔丙辰, 客等泊于難波津, 是日, 以飭船卅艘迎客等于江口, 安置新館, 於是, 以中臣宮地連摩呂, 大河內直糠手船史王平爲掌客, 爰妹子臣奏之曰, 臣參還之時, 唐帝以書授臣, 然經過百濟國之日, 百濟人探以掠取, 是以不得上, 於是羣臣議之曰, 夫使人雖死之不失旨, 是使矣, 何怠之失大國之書哉, 則坐流刑, 時天皇勅之曰, 妹子雖有失書之罪, 輒不可罪, 其大國客等聞之亦不良, 乃赦之不坐也.”

75) 노중국, 「7세기 백제와 왜와의 관계」, 『국사관논총』 52, 1994, 156~157, 160~162쪽.

76)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 “겨울 10월 백제 승려 觀勒이 왔다. 이에 曆本

이후에서 615년<sup>77)</sup> 사이에 12년 동안 백제와 왜의 외교관계기록 공백은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닐까.

井上光貞의 지적대로 602~3년 신라정벌 사령관에 聖德太子의 두 동생(來目皇子와 當摩皇子)을 임명했다.<sup>78)</sup> 왜는 결과적으로 신라를 침공하지 않았고, 고구려가 1년 늦게 신라를 공격했다. 그러한 와중에 백제가 아막성에서 4만의 병력을 상실하는 참패를 당했다.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왜의 입장이었다. 백제의 국서탈취에 대해 왜가 항의한 어떠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한편 국서탈취사건은 수황제의 권위까지 손상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적대국인 고구려를 둘러싼 여러 나라의 움직임에 수나라의 관심이 증폭된 시기였다. 608년 백제의 국서탈취사건 현장에 있었던 遣倭使 裴世清이 귀국한 후 수나라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수나라도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황제를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백제에 대한 수나라의 상응 조치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西嶋定生の 지적대로 번국 신하의 예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봉체제의 유지는 말 그대로 수나라가 국운을 걸고 행하던 사업이었고, 고구려 원정의 결과에 명운을 걸었던 수양제였다.<sup>79)</sup>

수양제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었던

과 天文·地理書 및 遁甲·方術書를 바쳤다. 이때 書生 3,4명을 선발하여 관료에게 배우도록 하였다. 陽胡史의 선조인 玉陳은 曆法을 익혔고, 大友村主 高聰은 天文·遁甲을 배웠으며, 山背臣 日立은 方術을 배워, 모두 배움에 성취가 있었다.”

77)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23年(615) 조, “23년 가을 9월 犬上君御田鎌와 矢田部造가 唐에서 돌아왔다. 百濟의 사신이 犬上君을 따라 來朝하였다. 11월 己丑 초하루 庚寅 百濟사신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78)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平樂寺書店, 1971, 36~37쪽. 石母田政, 『日本の古代國家』岩波新書, 1971[2001], 32~33쪽. 石母田政은 항족 장군의 임명 그 형태는 성덕태자가 군사를 통수하는 체제의 결과로 여겨진다고 보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는 친백제적인 蘇我방식과 친신라적인 (聖德)太子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앞의 책 51~52쪽). 필자는 기계적인 도식에 동의할 수 없다.

79)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日本歴史』2, 岩波書店, 1962, 249쪽.

것은 아니었을까. 적국 고구려의 후방에 위치한 백제는 이용가치가 있는 상대였다. 그러한 백제에게 국서탈취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608년 당시 강적 고구려와 전쟁을 앞두고 있던 그의 입장에서 일단은 원조를 약속을 했던 백제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번국 신하의 예를 바로 잡고 책봉체제의 유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정벌해야 하는 목적은 또 다른 현실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문제도 그러한 현실에 무력했다. 598년 고구려가 말갈기병 1만을 동원하여 요서를 습격하자 돌궐의 도람가한과 달두가한이 수나라를 침공했다. 고구려의 요서침공에 북방민족들이 연쇄반응을 보였다.<sup>80)</sup>

그러자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은 도중에 중지되었고, 수와 고구려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수서』 권81, 백제전을 보면 598년 6월 백제의 고구려 토벌 요청에 대해 수문제는 “高元(고구려 영양왕)君臣이 두려워하여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복종하므로, 朕은 벌써 죄를 용서하여 주어 토벌할 수가 없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구려가 수에 조공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고구려 침공을 다시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시 수나라는 돌궐과 교전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다.<sup>81)</sup>

611년 2월 백제 무왕은 사신 國智牟를 파견하여 행군기일을 수나라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수양제는 사신 席律을 백제에 보내 화답했다.<sup>82)</sup> 백제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수양제는 백제의 심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83)</sup>

80) 鬼頭清明,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74~75쪽.

81)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29쪽.

82) 『隋書』 권81, 동이 백제전.

83) 백제의 양단책이 드러난 612년 병력 30만을 상실한 수양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고구려와 분한 마음에 전쟁을 지속했던 수양제는 이후 백제에 대해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수나라의 무능함이 폭로되고 고구려의 막강함이 드러난 당시 수나라 중심

왜의 자존망대의 자세가 보이는 왜의 국서에 분개하면서도 裴世淸을 妹子에 달려서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왕의 견사에 답하고 있는 수양제였다. 양제가 무례한 국서를 받았지만 고구려정벌을 눈앞에 두고 왜를 버려두기보다는 끌어들이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sup>84)</sup>

국서탈취사건 이후 왜와 신라의 관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608년 많은 신라인들이 왜에 귀화해 왔다.<sup>85)</sup> 井上光貞은 이 사건을 이후 신라와 왜의 관계가 호전된 증거로 보았다. 이어 그는 610년 신라의 견왜사 파견과 관련한 다음의 기록에 주목했다.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8年(610) 조를 보자.

18년(610) 가을 7월 新羅의 사신 沙喙部 奈末 竹士가 任那의 사신 喙部 大舍 首智買와 함께 筑紫에 이르렀다.

(18년) 9월 사신을 보내어 新羅와 任那의 사신을 불렀다.

(18년) 겨울 10월 己丑 초하루 丙申新羅와 任那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날에 額田部連 比羅夫에게 명령하여 新羅의 사신을 맞이하는 莊馬(かさりうま)의 長으로 삼고, 膳臣 大伴을 任那의 사신을 맞이하는 莊馬의 長으로 삼았다. 그리고 阿斗河 근처의 숙소에 머물게 하였다.

(18년 10월) 丁酉사신들이 조정에 배례하였다. 이에 秦造河勝과 土部連菟를 명하여 新羅사신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고, 間人連鹽蓋와 阿閉臣大籠을 任那사신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모두 인도하여 南門으로 들어와서 뜰 한가운데 섰다. 이때 大伴昨連, 蘇我豐浦蝦夷臣, 坂本糠手臣, 阿倍鳥子臣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와 뜰에 엎드렸다. 그러자 양국의 사신들은 각각 두번씩 절하고 사행의 뜻을 아뢰었다. 이에 4명의 大夫가 일어나 大臣(소아마자)에게 나아가 아뢰니, 大臣은 자리에서 일어나 政廳 앞에 서서 들었다. 다 마치고 사신들에게 祿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18년 10월) 乙巳사신들에게 조정에서 향응을 베풀었다. 河內漢直贄를 新羅 사신과 함께 먹는 사람으로 삼고, 錦織首久僧을 任那사신과 함께 먹는 사람

의 세계질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84) 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149쪽 및 같은 쪽 註 30 참조.

85)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6年(608) 是歲 조.



으로 하였다.

(18년 10월)辛亥사신들이 의례를 마치고 돌아갔다.

井上光貞은 『日本書紀』에서 이와 같이 신라사절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외교의례 등 상세한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때 신라 입공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다음의 몇 가지가 특히 주목된다고 한다.

먼저 의식의 상세한 절차에는 조공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사신의 목적이 조공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신라 사인이 임나사인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신라에 의한 임나조의 대납에 관한 약정이란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귀국한 한 후 다음해 8월 신라사신이 임나사신과 함께 왜국에 왔으며, 그들은 명확한 조공사신이었다. 이렇게 볼 때 610년의 신라사 仕事는 임나공조에 대한 약정이고, 다음 해에는 그 약정을 이행하는 조공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나아가 그는 신라와 임나사신의 왜조정 來朝는 小野妹子가 2회에 걸쳐 사신으로 수나라에 다녀온 추고 17년(609) 9월에서 약 1년 후에 있었으며, 추고 2기의 대수외교를 基軸으로 한 외교정책 안에서 일본과 신라 간에 평화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고 보았다.<sup>86)</sup>

610년 신라의 遣倭使와 왜왕권의 대신라 외교노선 우호적 전환에 대한 지적은 동의한다. 하지만 신라가 그해 의례를 통해 임나의 조를 약정했고, 이듬해 그것을 이행하는 조공을 했다고 보는 것은 一面적 시각이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수나라와 왜의 외교관계를 기축으로 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의 견해는 중심과 주변의 명백한 구분이 있어 다분히 이념적이다. 왜의 대수외교에 대해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왜국이 수나라와 외교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신라가 왜에 접근했다고 보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86)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1, 45~46쪽.

것이다. 신라·왜 양자가 당면한 현실이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과거 적대적이었던 양국의 관계 개선이 백제의 국서탈취 사건 이후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는 왜와 백제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먼저 신라의 입장을 보자. 602년부터 고구려·백제 양면공격을 받기 시작한 신라는 왜와 관계개선이 필요했다. 608년에 진평왕은 빈번한 고구려의 침공을 수나라에게 말하고 군사를 청하는 글을 올렸다.<sup>87)</sup> 고구려는 그해 2월 신라 북쪽 변방을 공격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고, 4월에 신라 우명산성을 함락시켰다.

611년 8월에도 신라가 왜에 사신을 보냈다. 『일본서기』 권22, 추고 19년(611) 가을 8월 조를 보면 “新羅가 沙喙部 奈末 北叱智를 보내고, 任那가 翳部 大舍 親智周智를 보내어 함께 조공하였다.”라고 한다.

다음으로 왜의 입장을 살펴보자. 고도로 발달된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왜가 對신라외교를 타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610년 신라사에 대한 왜국의 빈례는 2년 전(608) 수나라 사절 일행을 맞이했을 때와 같은 중국적인 의식에 준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떨어지지만 共食者는 수나라사절 빈례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빈례에 참여한 大伴昨連, 阿倍鳥子臣은 수나라 사신 裴世清으로부터 국서를 넘겨받은 인물이고, 蘇我豐浦蝦夷臣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蘇我馬子の 아들로서 후에 大臣(오오오미)이 된다. 빈례의 책임자는 소아마자였으며, 빈례에 참여한 인물들은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고관들이었다. 신라사신은 수석관위가 11위인 奈麻인 점은 『日本書紀』의 신라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례적이다.<sup>88)</sup>

87) 『三國史記』 권4, 진평왕 30년

88) 延敏洙, 「日本書紀 ‘任那調’ 關係記事檢討」, 『九州史學』 105, 1992;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327~332쪽.

延敏洙,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46~47쪽  
연민수는 앞의 두 글에서 신라가 왜의 대중국외교의 향로상에 위치했고, 견수사의 주요

왜의 입장에서도 볼 때 백제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신라와 기존의 적대적인 관계 청산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의 대중국외교의 향로상에 위치한 신라였다. 백제와 신라 둘 모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선진문물 수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倭使所持 隋皇帝 國書탈취사건과 왜왕권의 신라사신에 대한 이례적인 외교적 의례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보다 신라는 더욱 절실했다. 고구려·백제와 만성적인 전쟁상태로 들어간 신라는 그 배후의 왜와 관계개선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611년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지금의 북경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진평왕은 수양제에게 결사표(乞師表)를 봉(奉)했고, 양제가 이를 허락했다. 그해 10월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 서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가잠성을 함락시켰다. 그곳은 백제군이 익산-무주-성주-대구를 거쳐 신라 왕경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코스에 위치한 요새였던 것으로 보인다.<sup>89)</sup>

## 6. 맺음말

일본학자들이 주장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수 중심의 세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불완전했다.

---

통과지점을 신라가 장악하는 한 항해의 안전은 보증하기 어려워 왜가 신라와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했다. “특히 국서 등의 기밀 서류를 휴대하고 있는 까닭에 외교상의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 推古15년(607) 견수사 이듬해 귀국할 때 수황제의 국서를 「백제인이 약탈했다」는 견수사의 보고도 있듯이 사절의 왕래에는 항상 불의성과 위협성이 잠재해 있다.” 또한 608년 왜의 견수사는 백제가 동반했고, 당시 백제는 한반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백제-왜를 잇는 신국제질서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610년 왜의 신라와의 관계개선은 왜의 ‘다면외교’로의 전환이며, 당시에도 왜와 백제가 우호적이었다고 보았다.

89) 최근 가잠성의 위치를 전북 무주지역으로 논증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윤선태, 『武王과彌勒寺』 『미륵사지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 고궁박물관 2010년 5월.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에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왜왕의 국서가 수황제에게 전달되었고, 귀국하던 왜의 사절이 소지한 황제의 국서를, 동행한 수나라 사신이 보는 앞에서 백제가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였다. 국가 간의 외교도 좋은 관계로만 지속될 수 없었고, 그 반대가 되기도 어려웠다. 국제정세의 유동성은 수나라가 고구려와 2차 전쟁을 결정하면서 더욱 커졌다.

堀敏一의 지적대로 강력한 중국 국가(隋)의 출현은 한반도 삼국 간의 대립·항쟁을 격화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sup>90)</sup> 북방초원의 세계도 마찬가지였고, 한반도의 배후에 위치했던 왜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601년 왜는 고구려와 백제에 신라를 협격하자고 제안했다. 가야지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던 것 같다. 602년 3월 왜군이 신라출병을 위해 九州에 집결시켰고, 백제는 4만의 군대를 동원했다. 그해 8월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했다. 지리산 운봉에 위치한 아막성은 백제가 남강유역을 타고 임나지역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양군의 결전이 벌어졌고, 결과 백제군 4만이 전멸했다. 왜와 고구려의 신라침공이 지체되고 있는 와중이었다.

602년 6월 왜는 신라출병 사령관 來目皇子의 병환으로 신라출병이 연기되었다. 그해 고구려는 수의 지원을 받던 동돌궐 계민가한이 서돌궐 달두가한을 타도하고 초원의 지배자가 되었다.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사태를 관망해야 했던 고구려는 남쪽 신라에 대한 출병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608년 8월에야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했다.

고구려·백제·왜 3국이 신라를 협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계획을 제안한 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고구려는 1년 동안 늑장을 부렸다. 약속을 정확히 준수한 백제만이 신라에 패배하여 4만의 병력을 상실하는 재앙을 맞았다.

90)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1993, 194쪽.

왜와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원망이 없었을 수 없다. 603년과 615년 사이 12년 동안 백제는 왜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고, 607년 수나라에 고구려를 협공할 것을 제안했다. 고구려와 전쟁을 결심한 수황제는 백제의 청병을 반겼다.

608년 수황제의 국서를 가지고 서해안을 지나던 왜사신의 선박을 백제가 세웠다. 그 배에는 수나라의 견왜사가 동승하고 있었다. 망망대해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백제 견수사가 귀국하여 자국해안을 경유할 왜 사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승선한 백제 인들은 왜사신의 손에 들려있던 황제의 국서를 압수했다. 602년 왜는 백제에게 신라출병 약속을 어긴 일이 있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다. 신라출병 중지가 백제군 4만 전멸로 이어진 사정을 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국서탈취 사건은 세계질서의 중심에 있던 수황제의 권위까지 손상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遣倭使 裴世淸 등이 귀국한 후 수나라에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다. 황제를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백제에 대한 수나라의 상응 조치는 없었다.

西嶋은 번국 신하의 예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봉체제의 유지는 수나라가 국운을 걸고 행하던 사업이었다고 했다. 고구려 원정의 결과에 명운을 걸었던 수나라는 고구려 후방에 위치한 백제의 심사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의 입장에서 향후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원조를 약속을 했던 백제에게 국서탈취문제를 제기하여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질서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李成市の 지적대로 자존망대의 자세가 보이는 왜의 국서에 분개하면 서도 裴世淸을 왜에 파견하여, 왜왕의 건사에 답하고 있는 것이 당시 수양제의 입장이었다. 고구려정벌을 눈앞에 두고 왜를 버려두기보다는 끌어들이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백제와 왜 양국의 명백한 불협화음이라 보지 않을 수 없는

608년의 국서탈취사건은, 신라에게는 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610년 왜국에 대한 신라의 사실판견에는 이러한 기대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왜도 자국을 찾아온 신라 사신을 환대했다. 국서탈취사건으로 백제와 관계약화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왜는 신라와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의 조정은 신라사절을 위해 빈례의식을 했다. 의식의 책임자는 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 蘇我馬子였으며, 빈례에 관여한 인물들도 당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고관들이었다. 백제의 국서탈취에 대한 왜의 ‘반응’이 신라사신에 대한 왜왕권의 무게 있고 격식이 갖추어진 외교적 의례로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 2012. 12. 31,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ABSTRACT>

## Baekje Intercepted a Japanese Diplomatic Message

Seo, Young-kyo

Sui Dynasty centered world order existed as Japanese scholars insisted, but it was incomplete and didn't last long. Japanese king sent a diplomatic message to the emperor of China. Chinese emperor sent a message in reply to the king of Japan, But Baeje seized the message in the presence of the Chinese envoys.

In 601 Japan proposed Goguryeo and Baekje to attack Shilla. In March, 602, the Japanese army of 25,000 troops assembled in Kyushu(九州) to attack Shilla. Baekje's 40,000 troops were gathering in Namwon(南原).

Baekje's first military action began in August, 602. Baekje attacked Shilla at Ahmak fort located in Jiri Mt. Silla army counterattacked and defeated Baekje while the Japanese and Koguryo armies were being delayed.

Japan did not keep the promise to attack Shilla, because the commander was sick. At the time, Goguryeo was facing dramatic changes in their area and delayed dispatching its army for a year. Baekje blamed Koguryo and Japan. Baekje had seve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In 607 Baekje proposed Sui Dynasty to attack Goguryeo. Sui emperor welcomed Baekje's proposal. In 608, Baekje had captured the Japanese ship and diplomatic documents were seized. It undermined the authority of the Sui emperor who believed China was at the center of world.

The Chinese emperor tolerated the fact that Japan did not keep its promise, because the emperor needed Japanese forces to attack Koguryo. In 610, Shilla sent an envoy to Japan, and Japanese emperor warmly welcomed the envoy because Japan could not maintain hostile relationship with Shilla when Japan's relationship with Baekje was worsening.

Key Words : Baekje King Mu, Silla King Jinpyong, Su China Yangti, Tardu, Ononoimoko, Baesechung, Kumenomiko, Amak Castle, Bukhan Castle